

다윈의 진화론과 마르크시즘

글 | 엄정식 _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jsumek@hanmail.net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화하기가 어렵고 몇 마디로 요약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데, 유물론적 변증법을 설파하는 반관념론적 철학자, 잉여가치설을 주장하는 반자본주의적 경제학자, 그리고 소외론을 통해 비인간화 현상을 매도하는 급진적 휴머니스트 등이 그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영감 얻은 ‘과학적 사회주의’

사실 이 세 입장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반드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이론적으로 상당한 결함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마르크시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그의 잉여가치설은 이제 경제학에서 별로 언급의 대상이 되지 않고 변증법적 유물론도 거의 신화에 가까운 형이상학으로 전락하였으나 소외론에 입각한 자본주의 비판은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가르침으로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상사적 과거의 인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현대 사조의 중요한 조류를 이끌고 있는 마르크스의 중심사상을 이해하려면 그의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의 인간관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은 주로 다윈의 진화론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음을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19세기 자연과학이 이룩한 3대 발견, 즉 새롭게 확립

된 에너지 보존 및 전환의 법칙, 세포의 구조에 관한 학설, 그리고 다윈이 내놓은 종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생물 진화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과학 이론들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정신이든, 혹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어떤 불변의 실체로서가 아니라 가변적인 현상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마르크스는 19세기의 인물답게 진보의 개념을 받아들였고,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인류의 향상과 전진을 믿고 있었다. 이러한 진보의 관념을 당연하다고 전제하여, 진전의 방향과 완성의 본질을 그리려고 그는 노력했던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윈의 ‘진화’ 개념은 식물과 동물의 생물학적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뿐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에 당위의 법칙을 제시하는 ‘진보’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철학의 임무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확신한 그에게 진화는 곧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연 선택은 역사적 변증법의 논리로 이해되었고 돌연변이는 곧 혁명의 한 형태로 해석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정은 그 자체의 가치들을 만들어낸다. 다윈은 자기 설명이 과학적 가치 이상의 것이기를 기대하거나 의심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일단 과정이 설정되자 그것은 사회, 정치 및 철학적 가치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다윈을 동지적 사상가로 보았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른 유물론자들도 그의 설명은 오로지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믿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자연적 환경의 총체를 의미하며 비유기적인 자연과 유기적인 세계와 사회 활동과 인간의 의식 모두를 포함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 존재가 정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두뇌피질이라는 유기물질이 인간의 사유라고 불리는 반성적 행동의 복잡한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더구나 정신의 조건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노동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의미로 마르크스는 진화론의 개념을 빌려 물질적 질서의 우위성을 인정하면서 정신 활동을 물질의 부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에게 근본 실재는 복합적인 물질적 질서이고, 정신의 영역이란 여기서 파생된 것에 불과하며, 특히 이 질서는 생산 조건과 생산관계라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마르크스주의는 진화론의 가장 큰 오해의 산물

마르크스에 의하면 생산조건이란 천연자원, 도구들, 경험적인 노동기술 등을 말하는데 이 조건들에 의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물들이 생산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이란 항상 사회적 행위로서 발생하며, 따라서 인간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이나 사회로서 자연에 대해 투쟁하기도 하고 그것을 활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인간을 생물학적 개체라기보다는 '유적 존재'로 파악하고 생산조건들에 대한 정태적 분석보다는 인간들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생산의 동태적 관계가 더

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인간의 노동을 통하여 사회조직, 자연, 생산도구의 성격을 결정하고 동시에 그것에 의해 인간의 본성이 결정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생산관계의 진화, 즉 노예제도로부터 봉건제도, 다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의 추이는 이성적 계획의 산물이 아니라 물질적 질서가 지닌 내적 논리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이러한 식으로 역사의 여러 시기를 답사하면서 특히 이 과정이 필연적인 진화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공동으로 소유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성의 소외현상이 사라지고 생산수단 간의 모순이 극복되며 지상에서의 낙원이 실현되리라고 그는 예측하였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지 않고 각자는 자기가 희망하는 어떠한 분야에서도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으며, 사회가 전반적인 생산을 규제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내일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침에 사냥을 가고 오후에 낚시질하며 저녁때 가축을 먹고 저녁 후에 비판을 할 수 있게 되지만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뿐이고 결코 사냥꾼이나 어부나 목축업자나 비평가가 될 필요는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사회의 출현이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한 인간관에 의해서 함축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다윈에게 헌정했을 때 그가 정중하게 사양했다는 사실이다. 후에 칼 포퍼가 지적한대로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두 가지 오류를 범했기 때문일 것이다.

포퍼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과학'을 잘못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석도 불충분했다고 한다. 과학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탐구가 아니요, 사회라는 것도 예측이 가능한 역사적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에 무슨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한 목적이요,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닌다면 우리가 부여한 의미일 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르크스주의는 진화론에 관한 가장 큰 오해의 산물 중의 하나로 평가되어도 좋을 것이다. ㉮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